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는 CONTENTS

꼭꼭 숨어라, 콘텐츠가 보인다

벤처기업들의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자랑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복지 혹은 문화제도를 알리고, 옆집 벤처의 좋은 콘텐츠들을 훑어볼까요?

쓰리알소프트 책상에 책이 없다

쓰리알소프트 사원들의 책상엔 책이 없다. 공동도서관영제 '책상을 비우세요(empty table)' 때문이다. 업무와 교양에 필요한 도서는 무조건 무한 지원한다는 회사의 방침이 있어 직원들은 비용부담 없이 마음의 양식을 배불리 쌓을 수 있다.

처음 책상에 있던 책을 모으고, 개별적으로 도서를 기증 받는 것으로 시작해 허전했던 게 사실이었지만 벌써 책꽂이 하나가 다 찬 쓰리알소프트는 즐겁게 책 읽는 문화가 회사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렸다고 한다.

쓰리알소프트는 분기별로 독서평가를 실시, 대여횟수 및 독후감을 제공한 사원에 대해 특별한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쓰리알소프트**



기초체력증진을 위한 혹독한 정기의례, 마라톤

인비닷컴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인 마라톤 대회. 2달에 한 번씩 부산 본사로 내려가 직원단합 및 기초체력증진을 가장한 혹독한(?) 정기의례를 치뤄야 한다. 자료를 보내준 모 사원은 개인적으로 아직 한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 소감을 밝히기 좀 그렇지만, 겁 나는건 사실이라고... 사진은 지난번 부산에서 있었던 28km 산악 마라톤의 출발 전 모습으로, 이기용 대표가 직접 사진을 찍어 단체 사진에서 빠졌다고 한다. **-인비닷컴**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무료 음료 냉장고의 '편의점' 화!

'다날에 오신 분들은 모두 음료수를 마음껏 골라드세요. 단 셀프 서비스입니다' 라는 문구에 '이런... 손님이 직접 골라서 마셔도 된다고? 슬쩍 일어나 음료수 냉장고를 보고는 이내 깜짝 놀란다. 오렌지주스, 커피, 녹차는 기본에 온갖 종류의 음료수가 꽉꽉 찬 냉장고를 보니 무엇을 골라 마셔야 할지 대략 난감할 뿐이다.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본 사람들은 모두가 '웬지 계산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나 공짜여서 좋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음료들을 양쪽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아 언제나 음료가 모자라지 않도록 배려하는 복지로 직원들은 늘 목마르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날**



세계의 문화 경험 프로젝트

무급 휴가란 1년에 한달 동안의 휴가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제도로서, 신청자는 한달중 하루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한다. 메타브랜딩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도 한다. 신청자의 업무상의 공백은 팀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대행과 배려로 메꾸어진다고...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은 세계 곳곳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바 있으며, 그 경험이 장기적으로 메타브랜딩과 개인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메타브랜딩**